

오늘, 다시 마주한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울림

광주시립미술관 국내외기관협력전, '형상의 울림: 기호와 행위의 아름다움'展...내년3월1일까지

추상·단색, 자연 풍경 아우르는 3개 섹션 김창열·박서보·이우환 등 10명 작품 선배

우리에게 현대 추상회화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으로 인식되고는 한다. 하지만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화면 위에 남은 형상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순수한 아름다움에 몰입해 보면 어떨까. 선을 긋고, 색을 반복하며, 특정 안료를 쌓아 올리는 행위. 그렇게 축적된 가장 절제된 이미지 속에서 감동과 즐거움이 오롯이 드러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25 국내외기관협력전 '형상의 울림: 기호와 행위의 아름다움'을 통해 한국 현대회화를 대표하는 1·2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샘터화랑의 협조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회화 30점과 입체 작품 1점으로 구성됐다. 추상과 단색, 자연 풍경을 아우르는 총 3개의 섹션이 마련됐다.

전시의 첫 번째 섹션 '수행: 붓질과 반복, 사유의 행위'는 추상화와 단색화를 중심으로 그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한 작업들을 소개한다.

박서보, 윤형근, 이우환의 작품은 반복적인 붓질과 절제된 색면을 통해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캔버스에 격자형 틀을 만든 뒤 그 안에 물감을 채워 질감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정성화의 작업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박서보의 '묘법' 연작은 초기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에서 점차 직선적이고 정돈된 화면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 섹션 '형식: 기호와 조형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서는 작가들이 구축해온 고유한 조형언어와 기호가 화면 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명한다. 물방울 그림으로 잘 알려진 김창열의 작품을 비롯해 핑크빛 우주를 연상시키는 이성자의 기하학적 추상화 작품, 한지의 물성을 활용해 재료 자체가 만들어내는 우연성과 질감을 화면에 담아낸 정창섭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마지막 '자연: 자연을 응축한 내면의 감각' 섹션에서는 작가 저마다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자연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통영의 바다와 섬을 모티브로 전통 문양을 결합한 전혁림의 기하학적 추상화, 그리고 이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오브제가 함께 소개된다. 설악산을 소재로 화면 가득 생동감 넘치는 색채를 펼쳐낸 김종학의 작품, 고향 파주의 과수원 풍경을 밝고 울동감 있는 붓질로 담아낸 이대원의 작업도 이 섹션을 채운다.

전시를 기획한 이혁진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회화의 거장들의 작품을 나열하는 데서 더 나아가 회화가 지닌 순수한 형식과 그리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울림에 집중해 보고자 기획했다"며 "작품을 해석하려 하기보다 화면 앞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3월1일까지. /최명진 기자



사진 위로부터 '수행: 붓질과 반복, 사유의 행위', '형식: 기호와 조형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자연: 자연을 응축한 내면의 감각' 섹션 전시 전경

익명의 얼굴들에 투영된 우리시대 자화상

예술공간집, '넋지 프로젝트' 참여 작가 백상욱 개인전...내년 1월7일까지

익명성과 개별성, 현실과 은유가 교차하는 조형언어로 동시대의 얼굴을 만들어온 백상욱 작가가 예술공간집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예술공간집의 기획 프로그램 '넋지프로젝트' 1회에 참여했던 작가를 다시 초대해, 이후 확장돼 온 작업 세계의 흐름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다.

전시에서는 2022년 프로젝트 첫 회에 참여했던 백 작가가 이후 구축해온 조형적 사유와 표현의 확장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각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 작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술 환경 속에서도 물성과 공간성, 조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현대 사회의 풍경을 성실하게 재조작해 왔다.

작가 작업을 대표하는 상징적 모티프는 '신 발을 쓴 얼굴'이다. 특정 개인을 지시하지 않는 이 인물 형상은 익명성을 유지한 채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보편적 초상을 담아내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작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쳐온 순간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한다. 유쾌함과 씩씩함이 공존하는 삶의 표정은 직설적이면서도 은유적인 조형 언어로 재구성되며, 현실의 아이러니 속을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감정과 맞닿는다.

이번 전시는 조각이라는 매체가 여전히 동시대의 삶을 유효하게 사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작가 개인의 내면적 고민과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조형적 장면으로 구체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백상욱 작가는 "오브제와 인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설명적이지 않다. 유쾌함과 씩씩함이 교차하는 이 장면들이 어쩌면 웃고 싶었던, 혹은 웃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야기이자



'모닥부류'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며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함께 공감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내년 1월7일까지. /최명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나주 나들이

나주작은미술관, 내년 1월15일까지 '나주에 머물다: 기억의 풍경'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나주의 한 문화공간에서 펼쳐진다.

읍성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나주작은미술관)은 내년 1월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특별전 '나주에 머물다: 기억의 풍경'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5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소장한 현대미술 작품을 지역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미술관 4동(회화)과 5동(사진)에서 진행된다. 한국 현대회화를 대표하는 강요배, 이월종을 비롯해 이명호, 이정록,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주요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한다. 작품들은 자연과 도시, 기억과 일상

등 다양한 시각적·정서적 층위를 다루며, 동시대의 풍경과 감성을 깊이 있게 담아낸다.

전시 제목 '나주에 머물다: 기억의 풍경'에는 각기 다른 배경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나주'라는 공간에 잠시 머물며 관객의 시선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담겼다. 작품 속 자연의 결, 도시의 흔적, 서사의 파편들은 관람자의 기억과 감성과 맞닿으며 또 다른 '기억의 풍경'으로 확장된다.

김현희 큐레이터는 "미술은행 소장품을 나주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뜻깊다"며 "작품 속 감정과 풍경이 관람객의 기억과 만나 새로운 감상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체 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문의는 나주 작은미술관(061-334-1551)으로 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